

2015 AUTUMN Vol. 27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News

박물관 풍경

風景



기획특별전

‘인천, 근대의 시간을 달리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5년도 두 번째 기획전시는 ‘시간(時間)’을 주제로 한 근대도시 인천의 이야기이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24시간이라는 개념은 당연하게 주어진 하루의 기준이 되었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다. 이러한 ‘시간(時間)’이라는 개념적인 소재가 근대도시 인천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근대이전 사람들은 시(時)의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세상은 시와 시 사이를 규정하는 개념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바로 ‘시(時), 간(間)’이다. 이제 사람들은 시간이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살아간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학교나 일터로 가야 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밥을 먹어야 하며, 졸리지 않아도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든다.

근대 도시 인천은 시간의 규칙을 몸으로 느낀 도시였다. 인천 사람들에게는 이국적인 근대 문물보다 뱃시간, 열차시간 등 근대가 규정한 시간의 개념이 더욱 낯설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시간을 맞이하고, 시간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된 사람들과 그 사회의 모습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1부. 시간의 근대화



근대적 시간이 도입되기 이전에 조상들은 첫닭이 울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와 하루 일과를 마감하던 생활 풍습을 간단히 비교하였



다. 닭의 울음소리는 지금의 자명종 소리를 대신하고, 절기와 같이 계절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자연의 흐름으로 구분되어진 때의 구분은 지금의 시계가 대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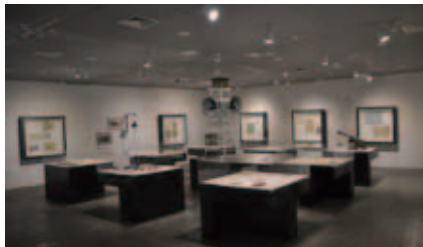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조선인들은 하루의 세부적인 구분보다 계절과 절기가 더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산업화로 인해 시간의 개념이 보편화한 외국인들의 눈에는 게을리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다.

2부. 근대의 시간, 그리고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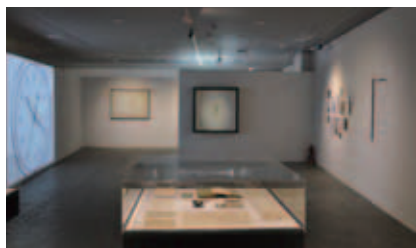
개항과 더불어 철도의 개통은 근대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변화이다. 1899년 개통된 국내 첫 철도인 경인철도(인천 제물포~서울 노량진) 기차와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출발하는 등 정확한 시간관념이 일상에 파고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보급된 각종 시계와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출항 시간표,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기차 시간표, 시간표가 인쇄된 교과서가 이런 사실을 보여 준다.

1906년 국내 최초로 중구 응봉산에 설치된 오편(午砲)은 날마다 정오에 정소에서 포를 쏘 당시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주민에게 하루의 중심을 알렸다. 이 소리에 맞춰 점심시간과 근무 교대 등이 이뤄졌다. 오보가 알리는 정오는 조선이 아닌 동경의 표준시를 중심으로 알렸다. 이는 영토와 주권뿐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마저 빼앗긴 상징적인 의미로 강조하였다.

수동으로 작동하던 오프는 기후의 변화에도 민감하여 발포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시내 중심부에 설치된 사이렌이 그 역할을 대신하여 정오를 알리게 되었다. 이후 시계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이렌은 사라지게 된다. 보다 정확한 시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관공서와 기차역에 대형시계가 설치되었다. 회중시계와 손목시계는 사치품인데도 시대의 유행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시계의 등장은 한 도시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교육과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근대화 과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상이 되었다.



3부. 시간의 역습



시간의 개념이 정착되면서 변화하는 인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자 하였다.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대형시계 영상에는 움직이는 초침과 소리가 쉬지 않고 들린다. 일제강점기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전매연맹'이 내건 일장기와 '시간존중(時間尊重)'이라고 표기된 선전지 등이

어두운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다. 일제의 식민 통치가 한국인의 시간도 지배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시 마지막에는 공예 작가 현광훈 씨의 작품이 있다.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단순히 사회의 부속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이번 전시는 지금까지 우리 박물관에서 선보였던 전시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어 있다. 많은 설명과 해설이 있기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며 관람객들의 생각과 의견으로 전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시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관람객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글 • 이성용(전시교육부)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조우성
기획·편집 전시교육부 이성용 신은영 자원봉사자 엄경미 최정미
표지사진·글 조오다 제호 이태웅 디자인·인쇄 은정문화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옥련동 525번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TEL. 032-440-6750 FAX. 032-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www.facebook.com/icmuseum

CONTENTS 2015 AUTUMN Vol. 27

- 02 **전시 소개 I**
기획특별전 「인천, 근대의 시간을 달리다」
- 04 **전시 소개 II**
기획특별전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
- 05 **기획 기사 I**
대한제국시기 인천의 해안매립사업
- 08 **인터뷰**
공간의 재창조-인천 개항장거리에서 팻알을 만나다
- 09 **아미카툰**
송도를 찾아서-송도임해주택분양 포스터
- 10 **기획 기사 II**
인천 부역(府域)의 변천
- 12 **시간을 달리는 공간 ⑤**
장수동 800살 된 은행나무
- 14 **청소년 기획**
인천 종교 건축물 탐방
- 16 **분관 행사 소개**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 / 컴팩스마트시티 특별전
- 18 **박물관 소식**
전시, 교육, 행사
- 20 **소장 유물**
송도임해주택지분양 포스터

COVER STORY

염하는 남북으로 자유롭게 흐르는데

강화도 강화면 갑곶리와 육지의 김포군 월곶면 성내리를 잇는 강화교는 지난 65년 7월 20일 착공, 그 동안 5억8천7백만원을 들여 5년 만에 완공되었다. 연장 694m, 너비10m(2차선)의 이 다리가 개통됨으로써 종래 나룻배로 육지와 왕래하던 강화도의 12만 주민들은 교통상 큰 혜택을 입게 되었으며, 지역 개발, 군 작전 등에도 큰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매일경제 1970. 1. 26 기사(뉴스) -



1970년 1월 강화도에 다리가 설치되었다. 이 다리를 통해 섬과 육지는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1997년 12월 새로운 다리가 준공되면서 구)강화대교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폐쇄된 채 방치되었다가 최근 평화누리길(강화~김포)연계사업으로 인해 자전거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덕분에 염하의 짙고름한 바람을 들이키며 오랜 세월동안 피난과 항쟁의 역사가 담긴 강화해협을 맘껏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민간 선박의 북쪽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길게 설치된 그물에서 또 다른 경계와 단절의 모습을 보게 된다. 염하는 여전히 하루에 두 번씩 물길을 바뀌며 남북을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데.....

※ 「박물관 풍경」의 2015년 표지사진 및 커버스토리는 인천의 낯선 풍경을 주제로 합니다.

우리 기록문화의 역사를 돌아본다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

글 • 안홍민(강화고려역사재단)



강화 외규장각



정족산 사고

2015년 인천광역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되었다. 책은 지식의 보물창고이며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의 열쇠이기도 하다. 인천의 세계 책의 수도 지정은 인천이 책 읽는 도시, 책을 사랑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책과 함께하는 문화를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출판·인쇄기술을 보유한, 책과 밀접하게 함께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권력의 국가통치, 심오한 학문과 종교신앙, 개인의 사소한 일상과 생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세한 기록을 남긴 기록문화의 충실함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문화 속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팔만대장경, 조선왕조실록 등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 받는 위대한 기록유산이 생산될 수 있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은 이러한 우리 기록문화의 위대한 전통을 인천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공동으로 세계 책의 수도 기념 행사인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한 달 동안 열리는 이번 기록문화전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 기록문화의 역사와 발전상을 보여주면서, 특히 인천지역 기록문화의 위상과 가치를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위대한 기록문화의 전통 속에서도 인천, 특히 강화는 더욱 빛을 발하였다. 고려 대몽항쟁기의 팔만대장경, 강화 외규장각의 의궤, 정족산 사고에 보존되었던 조선왕

조실록 등 강화는 우리 역사의 위대한 기록유산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번 기록문화전은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천 지역의 기록문화 전통을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록문화전에서는 기록 관련 유물의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인간이 남긴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선사시대 암각화부터 현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기록물, 기록매체를 통해 기록이란 무엇이고 기록이 인간의 삶과 사고에서 어떠한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관람객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대장경 학술회의, 전통 인쇄·제책기술 체험 행사, 한국의 기록문화 시민강좌 등 우리나라 기록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의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은 시민들은 이러한 부대 행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기록문화전을 비롯한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은 시민의 공감과 동참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기념해 열리는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에 인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며,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제국시기 인천의 해안매립사업

글 • 박진한(인천대학교)

1. 인천의 해안매립사업과 『인천항화개동매죽공사관계문서』

인천은 항구도시지만 정작 바닷가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갯벌을 매립해 손쉽게 시가지를 확장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인천 앞바다 대부분은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뒤덮인 인공구조물로 직선화되어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인 것은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이 효율성과 경제성을 대신해 환경과 생태,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매립사업이 계획 또는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산업화에 따른 근대화가 자연에 대한 정복과 개조, 그리고 자본을 향한 탐욕의 결과물이라 한다면 갯벌을 매립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온 인천이야말로 가장 근대적이자 문제적인 도시 공간의 현재진행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대한제국시기 인천에서 진행된 해안매립사업에 관한 『인천항화개동매죽공사관계문서(仁川港花開洞埋築工事關係文書)』(이하 「화개동매죽문서」)가 보관되어 있다. 「화개동매죽문서」는 현재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일대에서 벌어진 매립사업 계획서와 도면 등이 담겨 있다. 얼마 전에 출간된 『한국 근대도면의 원점』(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2012)에서 매립사업에 관한 도면 8점을 소개한 바 있지만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서 작성했는지 아직까지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 기록과 한국학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화개동매죽문서」에 실린 이른바 '탁포(拆浦)' 매립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대한매죽회사와 한국진축회사

일본은 개항과 함께 인천에 전관조계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의 계속된 유입으로 조계지가 협소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안매립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매립지의 경우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립지를 불하해 시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 역시 매립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근대 학문을 익혀 1904년 31살의 나이에 용천감리서 주사(主事, 판임 6등)에 임용된 이대영은 일찍부터 해안매립의 사업성에 눈을 뜬 인물이었다. 그는 외국과의 통상 사무를 다루는 감리서 생활을 통해 매립사업의 수익성을 간파하고 회사 설립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5년 2월 이대영은 인천, 부산, 진남포 삼개 개항장 일대의 「적절한 해만(海灣)을 매죽해 내외국 상

민의 주거를 확장하고 도로와 선박 출입구를 개통해 화물적재와 운송의 편의를 도모하여 장래 국가정공(國家正供)을 확실히 납입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대한매죽회사 설립계획서를 대한제국 외부(外部)에 제출했다. 외부에서는 '인천과 부산 양 항구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외국에 사업권을 넘기고 저당을 잡이면 사업권을 폐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회사 설립을 허가해 주었다.

그런데 그해 6월 22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가 돌연 대한매죽회사의 매립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하야시 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후쿠시마 노리오(福島慎夫)가 대표로 있는 한국진축회사(韓國鎮築會社)가 지난 1903년 인천항 앞바다의 매립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대한매죽회사의 매립권은 무효이며 오히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의 매립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야시 공사는 일본 정부에 매립사업에 관한 내용을 상신하면서 한국진축회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진축회사의 설립 과정에는 전 한성신보 사장인 기쿠치 겐조(菊池謙讓)가 깊이 개입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의 관련자로 한반도에서 추방되었던 기쿠치는 다시 도한(渡韓)해 1898년 『한성신보』 주필에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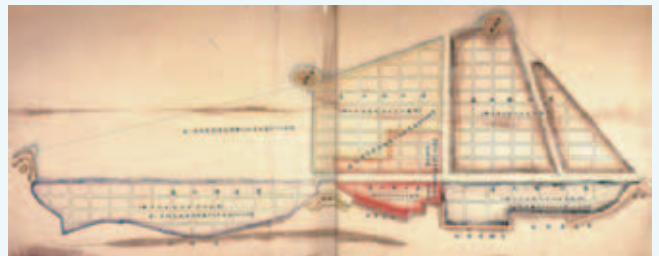
탁되었다. 이후 일제의 대표적인 어용언론인으로 활동하던 그는 자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 김익승이란 자를 내세워 1903년 한국진축회사를 설립하고 외부(外部) 인사와 접촉해 인천항 일대의 매립권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약간의 수수료를 챙긴 다음 인천 58은행에 관계하는 오다니 도메키치(小谷留吉)라는 이에게 매립권을 넘겼다. 그러나 매립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이듬해인 1904년 오다니에게 넘긴 매립권을 다시 회수해 나가모리 도키치로(長森藤吉郎)에게 되팔았다. 나가모리는 일제가 이른바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기 위해 파견한 인물로 대장성의 관방장을 지낸 사실상의 어용사업가였다. 기쿠치로부터 인천항의 매립권을 인수받은 나가모리는 1905년 4월 자신의 친척인 후쿠시마(副島慎夫)를 대표로 내세워 인천항 탁포 일대에 매립공사를 시작했다(그림1).



(그림1) 『화개동매축문서』에 실린 「仁川港埋築第一期工事計劃圖」에는 1905년 4월 3일 인천 감리서 앞으로 인천항 각국거류지 6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야마니시 조(山西組) 공업부가 보고한 신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곳에는 '일본공원 앞바다 매립공사권리자인 대한국진축회사로부터 공사를 청부받아 사업을 개시한다'는 문구가 실려 있어, 이 도면이 한국진축회사 측의 매립계획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대영이 사장으로 있던 대한매축회사는 1905년 6월 7일 일본인 사업가 기하라 다다이치(木原忠一)와 '매축공사청부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립사업을 시작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대한매축회사(갑)와 기하라(을)는 1905년 7월 30일까지 공사에 착수해 3년 후인 1908년 7월 30일까지 전부 완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처럼 계약 체결 즉시 사업을 착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탁포 일대에서 한국진축회사가 벌인 해안매립사업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인천항 일대의 매립을 놓고 화개동에서 기정동 방면으로 매립공사를 시작한 대한매축회사와 탁포 일대에서 매립사업에 착수한 한국진축회사가 서로 경합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야시 공사는 그해 8월 대한매축회사의 청부사업자인 기하라 앞으로 한국진축회사의 매립권을 침범한다는 이유를 들어 매립사업의 중지를 지시했다. 더욱이 하야시 공사는 기하라에게 사업 중지를 지시한 것에 머물지 않고 8월 17일 외부대신 이하영 앞으로 후쿠시마의 상신서와 사업도면을 첨부해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하야시가 첨부한 후쿠시마의 상신서는 한국진축회사의 사업 개요와 매립 계획도를 담고 있어, 한국진축회사가 계획한 매립사업의 대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진축회사는 본래 해안 앞바다에서부터 매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국거류지회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지를 조계지 외곽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1903년 5월 27일 인천 감리 하상기와 한국진축회사 총무인 김익승, 당시 매립권을 보유하고 있던 오다니 도메키치(小谷留吉) 등이 입회해 인천신사 앞 탁포(拆浦) 일대 간석지를 둘러보고 매립지를 구분하기 위해 표석을 세운 다음 3통의 도면을 작성했다. 당시 작성한 도면 가운데 1통은 후쿠시마 측이 보관하고 2통은 인천 감리서에 제출했다고 한다(그림2).



(그림2) 황색 부분은 당시 계획한 매립지로 총면적은 24만 6688평이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28개의 점은 각국거류지에서 사도(沙島)를 지나 해면을 따라 그은 경계선에는 매립지를 구분하기 위해 세운 표석이다.

그런데 필자의 확인 결과 후쿠시마의 상신서에 첨부된 도면과 『화개동매축문서』에 실린 「인천항각국지차동남해면지도」가 동일한 것임이 분명한 만큼 매립예정지를 둘러보고 도면을 작성해 인천 감리서에 제출했다는 후쿠시마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화개동매축문서』는 일본공사 하야시가 기하라에게 보낸 사업 중지 명령서와 함께 이에 항의해 기하라가 선임한 변호사의 권리위임장, 이대영이 확보한 매축허가서, 이대영과 맺은 매축공사청부계약서 등이 공사도면과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건데 『화개동매축문서』는 인천항 일대의 매립을 둘러싸고 경합을 벌인 두 개의 매립회사, 즉 대한매축회사와 한국진축회사가 각기 매립권을 주장하고자 인천감리서에 제출한 문서와 도면이 외부로 넘어와 『화개동매축문서』로 정리되어 규장각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공사 하야시의 이의 제기에도 9월 2일 외부대신 이하영은



(그림3) 1905년에 시작된 만석동 일대 매립사업이 아직 예정지로 표기되어 그 이전시기에 작성된 인천항시기전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림4) 1909년 각국거류지 앞 매립계획서에 첨부된 인천시가도, 왼쪽 지도와 비교해 인천신사에서 탁포 일대로 새로운 매립지가 조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후쿠시마가 매립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한국진축회사는 정관을 비롯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회사인 까닭에 한국진축회사의 매립권은 실효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양도받았다는 후쿠시마의 주장 역시 무효’라는 내용의 반박 서한을 하야시에게 보냈다. 결국 인천항 일대의 매립권을 주장하는 두 개의 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비롯된 매립권 갈등은 대한매축회사의 매립권을 보장하려는 한국 정부와 한국진축회사를 지원하는 일본 정부 사이의 대립으로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천항 매립사업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은 그해 11월 17일 체결된 ‘을사늑약’ 이후로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통감부 설치와 함께 한국 정부의 외교권이 사실상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탁한

정국을 틈타 탁포 주변의 매립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이다. 모리모토(森本) 외 1명, 스즈키(鈴木) 외 4명, 일본거류민단을 비롯해 한국 정부로부터 매립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자 인천영사는 탁포 매립사업권이 나가모리 측에 있다고 한국진축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한편으로 일본 거류민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결국 탁포 일대의 매립사업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한국인 사업자의 권리와 참여를 배제한 채, 일본 ‘거류민단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아래 지도에서와 같이 1906년 4월 약 1만 3천 평에 달하는 매립지가 새로 조성되었다(그림3, 4).

3. ‘해안매립사업’에서 ‘공유수면매립’으로

개항기 인천의 해안매립사업은 일제 시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매립지는 주로 일본인에게 매각되어 일본식 시가지와 공장, 항만 시설 등이 들어섰다. 또한 매립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독점한 일부 일본인 사업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인사회의 유지로 활동했다. 아울러 해안매립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했던 일본의 외교관과 관료들은 이후 부산을 비롯한 여러 개항장의 매립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병합 이전 일본인들에 의해 수행된 해안매립사업은 개항장 이외에 한반도에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획득해 그들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한편 한일병합 이후 총독부는 산미증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을 제정해 매립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매립사업자와 일부 관련자가 독점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공유수면매립방식은 해방 이후 별다른 수정이나 변화 없이 답습됨에 따라 현재까지 매립사업은 값싼 토지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투기의 기회가 되었다.

우리보다 앞서 매립을 통해 국토를 확장해온 네덜란드가 제방의 일부를 허물고 습지 본래의 기능을 되살려 생태와 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라도 필수불가결한 매립사업을 가려 사업 면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안습지의 경제적 가치를 단지 부동산 가격으로 환원시켜 계산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갯벌이 가진 생태적 가치에 더욱 주목했으면 한다.

공간의 재창조

인천 개항장거리에서 팻알을 만나다

백영임(팻알 대표)

Café 팻알은 어떤곳?

등록문화재 제567호 '인천구 대화조 사무소'는 일제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겸 주택으로, 2012년 8월 개인이 매입하여 원형 복원에 가깝게 보수공사를 마치고 현재 'Café 팻알'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 중구 개항장거리에는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 인천아트플랫폼 등 근대건축물들이 역사교육의 장으로 또는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거리에 일본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목조건물 120년 된 낡은 하역회사 사무소를 고증을 거쳐 복원한 등록문화재 제567호 카페 팻알이 있다. 대표 백영임씨는 이 공간은 과거역사를 보존하되 현재적 가능성을 재해석하는 실험적인 공간이라고 말한다.

근대문화유산(하역사무소)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남아있는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활용을 잘하는 것이 보존이다.

시민단체에서 근대문화유산, 인천 개항장관련 일을 맡아서 해온 터라 내부수리를 하지 않은 이 집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집이 없어지거나 개조될까 봐 집 주인 할아버지를 여러 번 찾아가서 이 집의 가치를 설명했다. 왜냐하면 없어진 건축물을 새롭게 복원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교회 주차장으로 팔릴 수도 있었지만 집을 잘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통해서인지 매입하게 되었다.

문화재급 건물은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지만 일반 건축물들은 도심재생이란 이름으로 허물기도 한다. 카페 팻알은 개인이 매입하고 활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문화재 활용방법으로 카페는 다소 획기적이다. 카페를 생각한 이유는.

정규직이 아닌 이상 50세 이후에 무엇을 할까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다. 귀농귀촌을 마음 먹고 교육을 받아보니 사무직을 오랜 기간 하

고 아파트세대인 나로서는 힘들다는 걸 깨닫고 사회적 참여와 자아실현 또 경제적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카페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에서 커피와 빙수 파는 상업시설을 택했다. 카페는 시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라고 생각한다.

고증을 거쳐 복원하기까지 이 건물의 기본 콘셉트는.

교수와 지역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개인이지만 관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따른 것 같다. 일본강점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급스런 이미지로는 가지 않겠다. 남아 있는 건 다 살리되 보강공사가 필요한 기둥은 철근 그대로 예전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원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여자인지라 마당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욕심이 생겨 유명하신 전문가에게 부탁했더니 그 분은 돈 벌기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그러지 말라며 조언하여 자갈 깔고 화분 몇 개놓고 이 집에서 나온 구들장 재활용하여 올려놓고 등나무 씨 몇 개를 뿌린 게 고작인데도 멋진 정원이 되었다.





120년 된 집에서 볼 수 있었던 옛 모습은.

이 집을 파신 76세 할아버지께서 2층에서 태어나 한번도 옮기지 않은 등기 문서가 한 장인 오래된 집이었고, 120년 된 먼지 속에 세월의 흔적을 말하듯 벽지를 떼낼 때마다 초지로 쓰였던 1920~30년대 신문과 벗겨낼수록 더 오래된 1800년대 포스터와 항해일지 1920년산 독일산 문고리도 발견되어 활용하고 있다. 2, 3층 다다미방에는 곳곳에 창고가 무려 16개나 되었고, 오래된 향아리 속에 있던 책을 집어 들었을 때 책이 손에서 바스라져서 소르르 떨어지는 영화에서 불법한 광경을 경험했다.

팻알(pot_R)상호의 의미는.

팔빙수와 단팔죽에 사용되는 '팔'과 함께 인천항을 상징하는 'PORT'의 발음을 합쳐 놓고 'REVOLUTION'(혁명)의 앞글자 'R'을 조합하여 팻알(POT_R)이라는 상호를 만들었다.

근대건축물 팻알의 자랑거리는.

먼저 등록문화재 중 개인이 운영하는 첫 번째 상업시설이며 문화재에서 커피, 팔빙수, 단팔죽, 카스테라를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최고 자랑거리는 3대가 와서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를 즐기며 스토리텔링하는 공간이다.

백영임에게 팻알이라는 공간은.

손님들이 지나가다 이 집이 예전에 이랬다고 사진도 선물하고 박물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집이라 애정을 가져 주셔서 힘이 난다.

일본의 잔재를 없애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지역과 동네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가 아닐까. 앞으로 2, 3층에서 참여활동과 지역 활동을 하고 싶고 주변에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소감 한마디.

인터뷰하는 오늘이 팻알에 포스기가 들어온 날,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마음이 설레 가라앉지 않아 달뜨게 인터뷰하더라도 이해해 달라. 감히 제가 3년을 버티고 나뵈 열심히 했고 힘들 땐 접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3년은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했다. 앞으로 이 장소에서 인천을 상징하는 다양한 매체를 전시·판매하는 문화상품샵이나 갤러리 운영을 하고 싶다.

글 • 최정미(자원봉사자) | 사진 • 엄경미(자원봉사자)

Yami Cartoon

송도르 찾아서

송도임해주택분양 포스터

조유미(전시교육부)



인천 부역(府域)의 변천

글 · 강덕우(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1930년대의 인천 시가

1910년을 전후로 경인선 개통에 따른 주요 기관의 서울 이전, 경부·경의선 개통, 중국 및 구미상인의 철수에 따른 무역의 쇠퇴, 대일무역 중심의 부산 이전 등으로 인천의 상권이 약화되어 갔다. 개항 이래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던 인천은 서울의 관문으로 성격이 바뀌어 갔고,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인천부역의 탄생

1910년 9월 30일 공포된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에 의하면, 부(府)는 일본인 거류민단의 소재지에 두게 됨으로써 거류민단이 있던 인천에도 부가 설치되었다. 종래의 인천부가 폐지되고 대신 새로운 지방제도에 의한 인천부가 설치된 것이었다. 그리고 총독정치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자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우선 1914년 3월 1일 군과 면의 통폐합을 실시하였는데 통치비용의 절약과 행정상의 편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 4월 1일을 기하여 총독부는 서울·인천·군산·목포·대구·부산 등 12개 지역에 부제(府制)를 실시하였다.

이 당시 인천부로 편입된 곳은 각국인거류지·일본인거류지·중국인거류지와 부내면·다소면의 화도동(화수동)·수유동(화수동)·신촌리(화수동)·송림동·송현동·장천리(송의동) 일부·독갈리(송의동) 일부로 주로 조계지역의 주변이었고, 구인천부의 중심지였던 문학동과 나머지 지역은 부평군과 합하여 '부천'군으로 신설되었다. 부평의 '부(富)자와 인천의 '천'(川)자를 합한 것이었는데, 이로서 인천부는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농촌지역과 시가지지역을 분리시킨 것으로 이것은 비단 인천부만의 현상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우선 부로 승격된 곳은 예전부터 일본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어서 그들의 자치단체인 일본인거류민단이 설치되었던 곳이었다. 이후 총독부는 각 지방에 하천·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사업·철도 등 각종 복지시설을 건설할 때도 언제나 부를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였기에, 결국 부제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일본인들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인 거주지와 일본인 거주지를 분리시킨 것이었다.

제1차 부역 확장

1910~20년대 인천의 공업은 정미업으로 대표되었으나 점차 수도권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인천부와 인접한 외곽 지역은 새로운 공업지대로 발돋움하면서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더욱이 1918년 이래 항만설비가 완공되는 것과 동시에 통상상의 지위가 더욱 견고해지면서 인천에 거주, 이주하는 일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지가(地價)가 높은 도심지를 피해 부외(府外)지역에 정착하는 자가 다수에 달하고 있었다.

인천의 도시계획은 1926년 도시계획 기본조사와 1928년 3개년에 걸친 인천시구(市區) 개정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주사변(1931년) 이후 일제의 대륙 침략정책은 인천의 위상을 급부상하게 만들었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만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하여 병참기지로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선 공업화의 정책의 추진에 따라 일본자본의 유치와 공업화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도시 개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대륙침략의 거점을 개발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의 제정이 논의되어 오다가 1934년 7월 〈조선시기지계획령〉이 '최초'로 제정되었는데 대부분 시가지 계획은 '개별' 도시별로 독자적으로 입안하여 총독부의 인가를 받는 형식으로 결정되었다.

인천 역시 1920년대 이래 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구역내 인구 수용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외곽을 향해 현저한 팽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진전에 발맞추지 못하여 가옥은 통제되지 않은 채 건축되었기 때문에 장래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천 시기지계획을 수립하여 가옥 건축의 지침으로 삼아, 장래 통제된 시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부내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점증하는 병원과 학교 등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책이 요구되면서 결국 인천 부는 넓은 부지를 요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인천 부역의 확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천부는 1930년대 중반에 들어 행정구역의 확장을 전제하고 편입대상 구역에 대한 시설계획에 착수하고 있었다. 우선 이상적인 거리를 도심지로 진입하는데 있어 1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로 설정하였는데, 현 시가의 중심인 인천우편국 부근을 중심으로 반경 6km의 원을 그릴 경우, 동쪽은 다주면의 중앙을 횡단하여 그 서반부를 포함하며 동남쪽은 문학면 학익리·옥련리의 대부분을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업·공업·주거를 각 지역으로 나누고 도로 및 교통기관을 적당히 배치하며, 주거의 분산과 인구밀도의 적정을 기하면서 시민의 위생·보안을 기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었다.

1936년 1월 인천부윤은 부천군 다주면 도화리, 장의리(송의동), 용정리(용현동), 문학면 학익리, 청학리, 옥련리 등 2면 6리의 인천부 편입문제를 직접 총독부에 건의하였고 이해 10월 1일 인천신사(神社)에서 인천부역확장 '보고제(報告祭)'를 거행하였다. 이로써 인천부의 면적은 4배로 증가했고, 인구도 기존 82,952명에 편입될 지역 8,000명을 합하여 9만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곧 인구가 급증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소년형무소, 일선염색(日鮮染色), 오다후면공장, 신호인촌(神戶燒寸) 등이 있고 호로철기공장(鐵器工場)이 공장건축에 착수하고 송도유원지 개발, 제2축항의 본격 공사 등으로 곧 인구 15만 돌파를 예견하였기 때문이었다.

제2차 부역 확장

1937년 4월 〈인천시기지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1965년도를 목표년도로 설정하여 인구 20만명을 계획인구로 상정해서 가로·공업용지·주택지에 관한 시기지 정비를 시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인천은 개항장 개설 이래 어느 정도 구획정리가 되어 있어 기존의 가로를 그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1937년 5월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인천 부역의 확장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침략전쟁 목적에 부합되게 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했듯이 곧 전시경제체제로의 돌입으로 인한 재정난과 자재난으로 원활하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1938년 4월 《매일신보》는 인천부윤과 부평군수가 부평역전을 답사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그간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던 인천부의 행정구역 제2차 확장계획에 부평이 포함될 것을 시사했다. '비밀주의'는 당시의 관행으로 구획정리지구가 발표되는 순간 총독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폭등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해 5월 인천부회는 제2차 확장문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부천군 문학면, 서곶면, 계양면, 소사면 등을 인천부에 편입시켜 달라는 긴급 요청서를 총독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39년 2월 인천부는 문학면, 서곶면, 남동면의 5개 리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늦어도 4월에는 행정구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경인시기지계획〉이 발표되면서 〈인천시기지계획〉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1940년 4월 부천군 문학면, 남동면, 부내면, 서곶면 일부를 편입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로써 1936년 행정구역 확장당시보다 약 6배 가량 확장되어 1914년 이전의 인천부 면적을 거의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천 전역에 걸쳐 군수 병참기지를 건설을 위한 공업용지 조성과 주택지 영단주택 등과 같은 주택지 경영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광범위한 부역 확장이 이루어지자 인천부는 1940년 4월 1일 인천부 고시 제32호에 의거하여 출장소규정을 공포, 부내면 지역에는 부평출장소, 남동면 지역에는 남동출장소, 서곶면 지역에는 서곶출장소를 각각 설치하여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1943년 7월에 이르러서는 문학출장소를 설치하여 남동출장소가 관할하던 남촌동과

1936년 제1차 부역확장 때 편입된 문학면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광복 후에 전개될 행정구역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인천부역 제2차 확장도



동아일보 1936. 1. 10. 대도시의 부세확장안



매일신보 1936. 10. 5. 인천부역확장 보고제



인천사람의 자부심이 된 만의골 은행나무 장수동 800살 된 은행나무

내가 사는 인천에, 이토록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다. 15년 전, 만의골 은행나무를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랐다. 나무 나이가 800살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그 생김새에도 입이 딱 벌어졌다. 그때부터 인천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면 지나칠까. 만의골 은행나무는 자부심이고 자랑이었다. 내 인생에서 다시 찾아오지 않을 푸지게 넘쳐나는 사랑이 되었다.

인천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된 만의골(장수동) 은행나무. 나이가 800살이라 하니, 우리나라 역사로 따져봤을 때 고려시대부터 그 자리에 살고 있다. 은행나무의 태생이 문득 궁금하다. 손가락만한 모목으로 심겨졌을까, 어디 선가 씨앗이 날아와 자라기 시작했을까. 또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을 때 마을 풍경은 어땠을까. 만의골 사람들은 “한때 만의골은 만호나 살 정도로 사람이 북적거렸다고 한다. 만호 만호 하다가 만의가 됐다”고 말한다.

15년 전 마을 풍경은 지금과 무척 다르다. 나무 아래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타동 사람은 한두 사람 볼까말까였다. 마을 사람들은 논일 밭일 하러 나무 아래를 지나다녔다. 재현이 할머니는 대처에서 밭벌이하는 딸을 대신해 외손자 재현이를 봐주고 있었다. 재현이는 외할머니 품에서 청얼대다 낮잠을 자곤 했다. 아장아장 걷다가 씩씩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는 나무 밑동을 빙빙 돌며 놀았다.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돼 엄마 아빠한테 갈 때까지, 은행나무는 재현이의 단짝친구였다. 지금쯤 재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생이 됐을 것이다. 이렇듯 나무는 재현이의 놀이터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수다 장소였다. 수확한 채소를 다듬는 소통의 마당이었다. 한여름에도 나무 아래는 시원해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서늘하기까지 했다.

점점 나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평화롭고 한산한 마을 광경은 사



라졌다. 인천대공원과 소래산을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서 나무 주변은 하루하루 달라졌다. 등산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나무 아래서 쉬었다 갔고, 마을 전체가 음식점이 되다시피 바뀌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있겠나 싶지만, 변화 앞에서는 늘 혼란스럽다. 변화에 쫓아가 적응하지 못하는 까닭도 있지만, 무엇보다 만의골 은행나무 주변의 변화는 늘 찝찝하고 꺼림칙했다. 나무는 잘 살 수 있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혹시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장수천 상류의 맑은 물소리를 듣고 싶진 않을까. 소래산, 상아산, 관모산, 거머리산 등 주변 산에서 우짖는 새소리가 그리진 않을까.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진동하는 음식 냄새가 어지러워 수많은 이파리로 그 냄새를 털어내진 않을까. 깨끗한 공기는 꿈결에서나 맡게 되지 않을까.

나무는 힘들다 힘들다 말하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떠드는 소리를 그대로 들어 줄 뿐이었다. 사람들의 보드랍고 따듯한 말과 거만하고 오만한 말도 다 들어주었다. 절대로 투정부리지 않고 철이 바뀌는 대로 옷을 갈아입을 뿐이었다. 새봄이 되면 새싹을 팝콘처럼 튀우고 꽃가루를 날렸다. 여름엔 여름의 모습으로, 가을엔 가을대로, 겨울엔 겨울 모습으로 바뀌었다. 태풍이 오면 나뭇가지는 수없이 꺾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힘들다 싶어서인지 이파리 크기를 좀 줄였을 뿐이었다.

만의골 사람들은 은행나무가 있는 마을에 살고 있어 자랑스럽다. 그 마음을 모아 해마다 음력 칠월 초하루가 되면 당제를 지낸다. 당제 지내기 며칠 전부터 나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마음가짐을 바로잡는다. 하루 전날부터 소머리를 푹 고아 고사 당일엔 지나는 이들까지 불러세워 뜨끈한 떡국을 나눠 먹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해 당제를 올렸다. “만의골 은행나무에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마을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나무는 균형감 있게 잘생겼다. 어디엘 가도 만의골 은행나무처럼 풍채가 당당한 나무를 보기 어렵다.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멋지다. 마을 사람들의 애정과 자존심을 오롯이 품은 까닭이리라.

한량이 되어 나무 아래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수렁거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머물다 간 못사람들의 사연이 무심하게 흐른다. 800년 전부터 만의골 은행나무는 한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고, 그 이후... 지금까지. 요즘은 어떤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막힌 사연들을 듣고 있을까. 만의골 은행나무는 80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사람 사는 질박한 이야기들을 보듬을 것이다.

글 | 사진 • 김시언(시인)

인천 종교 건축물 탐방

글 • 청소년 기자 김희진(고잔고), 박재홍(제물포고)

멘토 • 문은희(숙명여대)

이번 가을호 청소년 기획기사는 인천의 '종교적' 건축물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개화기 당시, 인천에는 서구열강들의 진출로 많은 근대문물들이 유입되면서 전파된 여러 가지 종교들과 그와 관련된 건물들이 많다. 이러한 건축물들에서는 전형적인 서양의 건축 양식과 우리나라의 절제미 있는 건축 양식이 이루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볼 수 있다. 그 중 우리가 선정한 4가지 종교 건축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천주교의 아름다운 건축미 '답동성당'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 문화재 지정번호 - 사적 제 287호)

답동성당은 1889년, 천주교 신주인 빌렘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를 맡아 인천지역의 첫 번째 본당으로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고딕'양식이었지만 1937년 기존 건물의 외각을 벽돌로 쌓아 올리는 개축 공사를 완공하면서 현재의 건물 외형인 (수직적 상승감이 높고 종탑과 작은 돌기둥이 종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외형)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바뀌었다. 답동성당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1894년 근대 아동 복지시설의 효시로 알려진 혜성 보육원을 설립함으로써 오늘날 까지 많은 아동을 돌보는 데에 힘쓰고 있으며, 1900년 인천시립박물관학교를 설립하여 신자들과 가난한 이웃의 자녀들에게 초급과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1929년 박문유치원을 설립하고 1937년 현 인천박문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인천소화고등여학교 인수 및 운영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 큰 기여를 하였다. 웅장하고 화려한 자태로 근대 건축사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여 우리 고장 인천의 발전을 위해 힘쓴 답동성당은 지금까지도 많은 인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성공회 내동교회(내동 성공회성당)'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 문화재 지정번호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1호)

내동교회의 성공회 첫 포교는 1890년 영국 해군 중군 신부였던 코프(고요한)주교와 내과의사인 랜디스가 인천에 상륙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는 개신교, 천주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랜디스는 현재의 성당 자리에 성 누가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구호사업에 온 정성을 쏟으며 교세를 확장하였다. 내동교회는 러시아 영사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제물포내전 당시에는 일본의 적십자 병원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성 누가병원이 있던 곳에 세운 것으로 1956년에 완공하였다. 내동교회의 건축 양식은 화강암만으로 외벽을 쌓아 회백색을 띠는 중세풍의 석조와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처마 양식의 지붕이 잘 어우러져 건축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내고 있다. 창호 및 벽체 부분의 역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내동교회는 멋드러진 건축 양식으로 근대 건축물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을 뿐더러 성공회 교세 확장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내가 몰랐던 역사 그리고 미

옛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 놓은 발자국을 따라 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엔 새로운 깨달음과 경이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할 때도 있다.

한국의 어머니 교회 '내리교회'

내리교회는 대한민국 감리교 교회이며, 인천 중구 내동에 위치해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건립된 개신교 교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한국의 어머니교회'라고도 부른다. 한국 최초의 초등학교로 꼽히는 영화학교를 설립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한국 최초'의 기록들을 갖고 있다. 내리교회는 이때부터 교육과 선교를 병행하여 한국에 개화 문물을 들여오는 데 일조했다.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 세워진 내리교회의 정문을 지나 높은 계단을 올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세 분들의 동상들이 보이는데 바로 이 교회를 건립한 선교사 아펜젤러와 한국인 최초 김기범 목사 그리고 조원시 존스 목사의 흉상들이다.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드문 광경이다. 물론 이 분들 모두 이 교회 역사에 가담한 중요한 인물들이다. 그 중 이 교회에서 설립한 신학교를 통해 배출된 한국 최초의 목사 김기범 목사의 흉상이 유난히 눈에 띈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내리교회의 외관 모습이 달리 특이한 면은 없었지만 옛날에 지어진 현대식 건축이라는 점에서 평범하지만 유별난 느낌을 풍기고 있다. 또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둘러 구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근감을 주었고,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만큼 내리교회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그 위상에 감탄하며 역사를 알고 보아야 바로 보인다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 준 그런 곳이다.

특히나 아름다웠던 건물 '기독교사회복지관'

인천 기독교 사회 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에 있는 19세기 말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합숙소 건물이다. 이 건물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1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감리교회 사회 복지단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이 건물의 외관은 삼각 모양의 지붕과 붉은 벽돌을 석회모르타로 쌓았고, 내부는 목조로 건축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창호는 조선시대 서원이나 사찰의 승방 등에서 볼 수 있는 용자살을 원용하고, 가장자리는 빗살 모양으로 살을 짜 넣었다. 실제로 보았을 때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지만 그 건물 안에서 풍겨지는 분위기는 가히 예술적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건축물에는 여러 역사들이 담겨 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깊은 역사가 담겨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많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돌이켜보았을 때 그저 그냥저냥 지나쳐 온 건물들이 또 색다르게 보일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인천의 고성 계양산성’

서구 원당동에 소재하는 검단선사박물관에서는 7월 24일(금)부터 오는 11월 1일(일)까지 특별 기획전 「인천의 고성 계양산성」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계양산성 발굴 결과 확인된 성곽 시설물 사진자료와 출토유물 55점을 최초로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였다. 그동안 계양산성에서 조사된 성과를 재조명하면서 계양산성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계양산성은 인천 중북부에 위치한 계양산(해발 395m)의 동쪽 능선상(해발 202m)에 축조되었다. 계양산은 인근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을 살린 인천의 북부와 한강 하류의 요충지였다.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성을 쌓고 공격과 방어를 쉽게 하도록 한 것이 계양산성이다. 과거 계양산 일대는 주변이 물가였을 정도로 저평한 상태였지만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걸쳐 개간사업이 이루어져 육지화되었다.

현재 계양산성의 총 길이는 1,184m이며, 성벽 외벽은 6.5~7m, 내벽은 5m 가량의 높이까지 확인되었다. 계양산성과 관련된 조선시대 문헌기록

에는 성의 둘레길이는 1천 9백 37척(尺)이고 산성이 삼국시대 축조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고지도에는 고산성이라고 표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1997년 처음 계양산성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측량이 이루어진 이래로 올해 7차 발굴 조사가 진행된 결과, 계양산성의 성곽 축조 및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단서들이 확인되었다.

계양산성에서는 성문(城門), 치성(雉城), 집수정(集水井), 건물터, 구들유구, 소성유구 등이 확인됐다. 성곽의 각 시설들은 삼국시대의 산성이 처음 축조된 이후 구간별로 개보수되어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초기까지 주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하여 북문의 시설이 변형되었던 모습도 확인되었다. 또한 성 내부와 주변에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이장되었던 896기의 민묘도 분포하고 있었다.

계양산성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대부분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한 이후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전기까지 제작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중 제1 집수정에서 출토된 흑색 둥근바닥항아리와 『논어(論語)』 목간은 백제시대의 유물로 조사 보고되어 유물 중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론이 많다. 한편, 유물의 많은 부분이 통일신라시대 토기나 기와이기 때문에 계양산성의 최초 축성한 주체에 대해서는 신라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전시는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1~4차 발굴 조사의 성곽 시설 사진과 출토 유물들을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전시를 위해 계양구청에서 발굴 사진 자료 등을 전폭적으로 공개했고, 국립중앙박물관과 선문대학교박물관에서도 50여 점의 소장 유물을 제공했다. 검단선사박물관의 이번 특별전을 관람하면서 계양산성과 우리나라 성곽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글 • 박진영(검단선사박물관)



계양산성 제1 집수정



계양산성 북문지



제1 집수정 출토 둥근바닥항아리

‘사라진 섬, 파문힌 바다, 태어난 땅’

인천의 매립 역사는 고려시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도 인천 앞바다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토지 확보 수단으로 대규모 매립 공사가 한창이다. 그 결과 복잡하던 해안선은 곧게 뻗은 직선이 되어 인천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오랜 매립 과정 속에 낙섬, 소월미도, 청라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사라졌고,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갯벌과 바다였던 곳에 격자형 아스팔트 도로와 고층 아파트, 빌딩들이 들어섰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의 2015년도 특별전 “사라진 섬, 파문힌 바다, 태어난 땅”은 고지도 등 문헌에 의해 연구된 인천의 매립 역사를 도시계획사적 연구 성과와 함께 고찰하는 최초의 전시이다.

사라진 섬

인천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었다. 군사기지 역할을 한 섬도 있고, 관광지로 명성을 떨친 섬도 있다. 강화도를 비롯하여 영종도, 영흥도처럼 바다 매립으로 새로운 섬으로 태어난 섬들도 많다.

간척이 시작되기 전, 강화도 지역에는 강화도, 고가도, 황산도, 송가도, 석모도, 매음도, 교동도 등 수많은 섬들이 있었다. 이 섬들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였고, 넓은 갯벌이 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강화 지역의 간척은 몽고군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해변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던 고려 말과 조선 중기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고려 이후 장기간에 걸친 간척으로 강화 주변의 섬들은 크게 강화, 교동, 석모 등 세 개의 큰 섬에 포함되었다. 또한 청라도, 낙섬, 사도 등 인천 서북부 연안의 크고 작은 섬들은 대규모 매립 과정에서 그 형태를 잃고, 이름으만으로 ‘섬’으로 기억되고 있다.

파문힌 바다

인천 연안의 본격적인 매립은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시작되었다. 인천의 해안선은 1910년대부터 부두, 항만 등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 사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후 주안염전 조성, 우리나라 최초의 갑문식 선거인 인천항의 축조, 송도 유원지 건설, 광복 후 난민 구호를 위해 실시한 인천 서북부 지역의 농경지 조성 등을 위한 매

립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동아매립지가 바로 이시기에 탄생하여 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로 지정된다. 이로 인해 인천의 섬들이 점차 연육되어 사라지고 갯벌과 바다는 육지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인천 앞바다의 해안선 지도가 다시 그려지게 되었다.

태어난 땅

인천은 갯벌이 넓게 발달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갯벌을 매워 새로운 땅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인천이 가진 최대의 자원이다. 개항 이후 근대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천은 주거, 항만, 공업 용지 등의 새로운 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 인천 갯벌에서의 본격적인 매립 사업을 시작하였다. 매립으로 새롭게 태어난 땅은 인천 총 육지부 면적의 34%에 해당되며 현재도 매립은 진행 중이다.

시기별로 간척 사업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개항기부터 1970년대까지가 총 간척 면적의 28%이고 1980년대 이후가 72%에 해당한다. 인천의 행정 구역은 8구 2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바다와 접하지 않은 부평구, 계양구를 제외한 나머지 6구와 강화군, 옹진군 모두 매립으로 새로운 땅을 갖고 있다. 특히, 서구, 연수구, 중구는 도시 용지 중에서 50% 이상이 매립으로 새롭게 태어난 땅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탄생의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고려시대 농경지 확보를 위해 강화도에서 시작된 인천의 매립 역사는 개항 이후 일본인 조계지와 인천역 부지 확보 등 도시 계획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인천시는 총 행정 면적의 약 21.7%인 약 227km²의 새로운 땅을 얻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해당된다.

이번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의 특별전 “사라진 섬, 파문힌 바다, 태어난 땅”을 통해 인천의 매립 역사가 인천 도시 발전에 미친 영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글 · 박은미(컴팩스마트시티)



1910년대 지형도와 2014년 항공사진을 합성한 지도



1990년대 매립 전 영종도 항공 사진



2014년 매립 후 영종도 항공 사진

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

주제 한국과 인천의 기록 및 인쇄문화 소개
기간 2015. 10. 30(금)~11. 29(일)
장소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강화고려역사재단

작은전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주제 근대기 한국의 국가 상징 이미지와 디자인 변화 소개
기간 2015. 9. 22(화)~2016. 2. 21(일)
장소 시립박물관 2층 작은전시실

성인답사 타박타박, 인천

주제 학예사와 함께하는 인천의 역사·문화길 탐방
일시 2015. 9. 19(토) / 10. 18(일) 오후 2~5시
장소 인천 중구, 계양구 일대
대상 20세 이상 성인 회당 20명
내용 9월 19일 : '위락과 아픔의 공간 월미도'
 10월 18일 : '징매이교개 너머 서쪽으로'
신청 교육이 있는 주 월요일부터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032-440-6734

가족교육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주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만들기 체험
일시 2015. 7~12월 셋째 주 토요일
장소 시립박물관 3층 해넘이방
대상 어린이(5~12세) 동반 가족
신청 박물관 홈페이지 접수 **문의** 032-440-6736

가재 박물관으로

주제 교육과정 연계 박물관 체험활동
일시 2015. 9~12월, 화~금, 10:00~12:00
장소 시립박물관 해넘이방 **대상** 인천시내 초등학교
신청 박물관 홈페이지 추천 접수
문의 032-440-6739


청소년교육 뮤지엄+드림캐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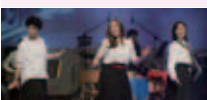
주제 박물관 내 직업군 체험
일시 2015. 10~12월, 화~금, 오후 2~4시
장소 시립박물관 해넘이방
대상 관내 중 고등학교 한 학급 또는 동아리(30명 이내)
신청 9월 14일부터 마감 시까지 전화 신청 후 신청서
 공문 접수
문의 032-440-6749


상설음악회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일시 2015. 4~12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4~5시

장소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신청 공연이 있는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032-440-6735
일정

일라스트로 듣는 드뷔시-달을 사랑한 뱀에로	
날짜	2015년 10월 11일
공연단체	아보비테 챔버 오케스트라
	드뷔시의 음악에 참재된 매혹적인 스토리를 일라스트로 표현한 아름다운 공연

세 여자의 아리랑꽃	
날짜	2015년 11월 08일
공연단체	여성민요그룹-(사)아리수
	우리 시대 여성들의 꿈과 애환을 그리는 음악극

인천의 살아있는 이야기 '흔적'	
날짜	2015년 12월 13일
공연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음악창작소 '더울'
	현존하는 인천의 5가지 문화유산을 통해 인천의 흔적을 찾고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공연

제17기 박물관대학 하반기 과정

주제 한일수교 50년, 그 빛과 그림자
기간 2015. 9. 18 ~ 11. 13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장소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상** 누구나
신청 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내용

날짜	구분	강의 주제	강사
9/18	강의	한일회담의 역사와 쟁점들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9/25	강의	독도 문제의 기원과 영유권 문제	호사가 유지 (세종대학교)
10/2	강의	한일회담과 경제외교	이현진 (국사편찬위원회)
10/16	강의	식민지기 반출 문화재의 반환 문제	국성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0/23	강의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 운동	후지타 타다요시 (서울대학교)
10/30	강의	대일청구권 자금과 포항제철의 건설	정대훈 (한양대학교)
11/6	답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11/13	강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새로운 쟁점들	박정애 (숙명여자대학교)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주제 동아시아의 소통과 책
기간 2015. 8~12월 중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2~4시
장소 시립박물관 3층 해넘이방 **대상** 누구나
신청 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내용

날짜	강의 주제	강사
9/22	조선시대 대일외교의 지침서 :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강문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27	강남 운하를 거닌 조선의 유자 최부 : 『표해록』	서인범 (동국대학교)
11/24	가고 싶지 않았던 차육의 사진길 : 연행록 다시 읽기	우경섭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2/22	청대의 서적과 조선	이준갑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공동 주최 사업

인문도시지원사업

청소년교육 도시탐구생활

주제 Community Map
내용 테마별 동네 탐구 후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지도 제작
일시 2015. 4~10월
장소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일대
대상 용현중학교 청소년 23명

청소년교육 상상놀이터

주제 지금을 기억하라
내용 기억과 기록의 소중함을 알고 인천 탐구 후
 지금을 기억하기 위한 창작물 제작
일시 2015. 12월 **장소** 남구 일대 **대상** 중학교 단체

성인교육 토지금고 인문학강좌

주제 토지금고를 열어라
일시 2015. 9~10월 중
장소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일대
대상 용현2, 5동 거주민 60명
신청 선착순 전화 접수(032-440-6749)

인문주간행사

주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
내용 마을 박물관 기획 전시, 인문도시지원사업
 결과물 전시 및 체험행사 진행
일시 2015. 10. 19~31일
장소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일대

인문 강좌 인문정신문화포럼

주제 소통과 조화,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동네

일시 2015. 9. 23(수) 14~18시

장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상 시민 누구나 **문의** 032-440-6736

송암미술관

진로체험 교육 꿈을 그리는 미술관

주제 유물관리, 보존처리, 전시기획과 연계한 학예 연구사 진로체험 교육

일시 2015년 학기 중 상시

장소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전시실

대상 초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단체 회당 20명 내외

신청 사전 전화 협의 후 신청서 접수

문의 032-440-6781

어린이 교육 알송!날송! 미술관

주제 유물감상법, 십이지, 사군자와 연계한 이론, 전시 실 교육 및 체험 실습

일시 2015년 학기 중 상시

장소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전시실

대상 초등학교 단체 회당 1학급

신청 사전 전화 협의 후 신청서 접수

문의 032-440-6781

2015년 송암미술관 특별기획전

주제 계승과 변화 - 한국 근대 수묵채색화

일시 2015. 7. 28(화)~10. 11(일)

장소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내용 송암미술관 및 타기관 소장 한국 근대 수묵채색화의 우수작 23점을 전시

문의 032-440-6782

검단선사박물관

문화행사 제6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기간 2015. 9. 1(화)~9. 29(화)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내용 수채·유채·콜라주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아래 부문 중 택 1

- 1)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유물 그리기
- 2) 검단선사박물관에서 있었던 일 그리기
- 3) 선사시대 상상화 그리기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참가비 무료(단, 도화지 이외 화구 개별 지참)

신청 대회기간 중 현장 접수

시상 및 전시 2015. 10. 21(수)

문의 032-440-6796~8

가족체험 점토공예 속 신기한 유물 이야기

기간 2015. 9~12월 두 번째 토요일, 오후 2~4시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체험학습실

내용 선사시대 유물을 장신구로 만들기

대상 6세~초등학생 자녀 동반 가족

재료비 1인당 5,000원

신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032-440-6797

진로체험 박물관과 학예연구사

기간 2015. 9~11월 금요일, 오후 2~4시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상설전시실

내용 학예연구사 소질·적성파악을 위한 청소년 진로체험

대상 중·고등학교 한 학급 또는 동아리

한국이민사박물관

광복 70주년 및 한라수교 25주년 기념특별전

주제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내용 사할린 징용, 이중 징용, 귀국 노력, 영주 귀국 후 정착 조명

기간 2015. 9. 21(월)~12. 31(목)

장소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영상실

포와 가는 길

내용 청소년 인천역사기행으로 개항장 하와이행 이민 유적 답사

기간 2015. 10. 17(토)~11. 7(토)
토요일 오전반 10시, 오후반 2시

장소 동인천 및 개항장 일대 **대상** 중고등생 30명

신청 박물관 홈페이지로 선착순 신청

참가비 무료 **문의** 032-440-4709

광복 70주년 문화가 있는 날 강연

내용 디아스포라와 노스텔지어 인문학 강연

일시 야간 개관에 맞추어 저녁 6시30분~8시 30분
9월 23일(수) : 강제동원 그 기억과 서사(정혜경 교수)
10월 28일(수) : 백마타고 오는 광야의 초인-김원봉, 홍범도, 허형식(장세운 교수)

장소 한국이민사박물관 지하 강당

대상 일반시민, 학생

신청 자유입장

참가비 무료

문의 032-440-4709

컴팩스마트시티

마수예술극장

내용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관람 가능 영화 상영

일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신청 선착순 100명 전화 신청

관람료 무료

문의 032-850-6030

상영일시	영화명	대상	장르
9/23	라퐁젤	전체	애니메이션
10/28	슈렉 3	전체	애니메이션
11/25	패딩턴	전체	애니메이션
12/30	스노우맨	전체	애니메이션

※상기 프로그램 및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토요시네마

내용 다양성, 고전, 도시, 환경 등의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신청 선착순 100명 입장

관람료 무료

문의 032-850-6016

상영일시	영화명	대상	장르
9/19	리스본행 야간 열차		도시
9/26	빅 히어로		애니메이션
10/3	런치 박스		다양성
10/10	E.T.		고전
10/17	시카고		도시
10/24	넛장: 명공 도둑들		애니메이션
10/31	더 코브		환경

※상기 프로그램 및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 상영 예정 영화는 추후 컴팩스마트시티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인문아카데미

주제 인천 도시 기행(가제)

일시 2015. 10~11월 총 6회 매주 목요일 15~17시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신청 일반시민 80명

참가비 무료

문의 032-850-6016

인천도시건축축교

내용 인천근대건축물 필통 만들기

일시 2015. 10월 매주 금요일 10~12시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전시관 및 4층 교육실

신청 6~7세 어린이

참가비 무료

문의 032-850-6030



송도임해주택지분양(松島臨海住宅地分譲) 포스터

소장 유물

1937년, 가로 38.2cm 세로 18.3cm

일제강점기 송도유원주식회사(松島遊園株式會社)에서 송도 일대의 임해(臨海) 주택지를 특가(特價)에 분양한다는 홍보 광고지이다. 이 광고지는 분양년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1937년 10월 『동아일보』에 임해주택지를 분양한다는 기사가 실린 것으로 보아 같은 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분양 대상지는 10만평이며 이를 70구(口)로 나눠 판매한다. 각 구의 면적은 150평이며 평당 택지 가격은 3엔(円)에서 15엔까지 다양하다. 판매기간은 1937년 10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부지공사를 착수하면 할인 특전을 준다는 내용도 보인다. 분양 대상 토지는 유원지가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전망 좋고 건강에 좋은 곳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택지분양이 인천과 경성에서 동시

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인천은 물론 경성부민(京城府民)이 중요한 영업대상임을 알 수 있다.

임해주택지가 자리했던 곳은 오늘날 인천 옥련동 일대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송도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 명칭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는 분명치는 않다. 송도는 글자 그대로 보면 소나무가 많은 섬이라는 의미로, 이 일대에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송도, 즉 마쯔시마는 이츠쿠시마(巖嶋)와 하시타테(橋立)와 함께 일본의 3대 명승지 가운데 하나로 일본인들이 한국의 명소에 자신들에게 친숙한 명승지의 이름을 붙였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송도로 불렸던 문학면 옥련리는 부천군에 속했으나 1936년 9월 인천부가 공업용지와 주택지 확

보를 위해 부역(府域) 확장을 하면서 인천부에 편입되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명칭이 옥련리에서 송도정(松島町)으로 바뀌면서 송도가 공식적인 지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곳 옥련리 일대는 부역확장 이전부터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대규모 관광지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송도유원지 개발은 1936년 4월 총자본금 이백만원으로 창설된 송도유원주식회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회사의 설립 목적에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조탕(潮湯), 운동장, 동물원, 아동 유흥장 등을 포함한 유원지의 건설·경영은 물론 유원지 일대에 임해별장과 주택 건설·임대도 포함되었다.

글·이희인(유물관리부)